

'다이로움' 앱 개편 홍보 총력

익산시, 내달 7일 신규 다이로움 앱 출시... 시민의 원활한 이용 위해 전방위 홍보 진행

익산시가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 앱 개편에 맞춰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상공인부터 정보 취약계층까지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원활한 이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다이로움' 신규 앱이 오는 3월 7일 출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이관 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결제 등 기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과 가맹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관련 단체와 점포시장 상인들을 직접 찾아 개편내용을 안내했다. 사업장마다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인에게는 개별 설명을 통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종업원과 소비자도 사전에 변화를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 기술(IT)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홍보도 강화했다. 경로당과 복지관을 방문해 노인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다이로움 앱 설치 방법과 이용법을 쉽게 안내했다.

또한, 통·리장 회의와 주민자치회의



익산시가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 앱 개편에 맞춰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에 참석해 마을 단위로 정보를 전파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접근성을 높였다.

익산시의 모든 직원은 '다이로움' 서포터즈로 나선다. 이를 통해 부서 구분 없이 누구나 다이로움 관련 문의에 응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이로움 카드 발행사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29개소)와 익산시 내 농협(51개소), 하나은행(2개소), 신한(18개소), 전북은행(9개소)에서 앱 설치 등에 대한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다이로움 앱은 3월 7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홍보물에 삽입된 빠른 응답, 이른바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3월 한 달간 앱을 설치한 뒤 다이로움 가맹점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가 2,000명을 추첨해 5,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다이로움 앱 개편으로 인한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새로운 다이로움을 통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경건위, 주요업무보고 청취

새만금정책담당관·안전 총괄과·도시계획과 대상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0일 군산시의회 제 272회 임시회 회기 중 새만금정책담당관 및 안전건설국 2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새만금정책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청취에서 한경봉 의원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관련 군산시가 그동안 동서도로, 수변도시 등 대응 부족을 언급하며, 새만금신항 결정은 자문위원회에서 원포트 운영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해수부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법무법인을 통한 관련 대응은 군산시 유리한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법리적인 검토 등을 통해 중반부 결정에 법적으로 반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박경태 의원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 지연됨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작품이 2025년 올해 잠마철 이후에 진행됨

을 지적했다. 김경우 의원은 이와 관련한 토지보상 지연을 언급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서은식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대리사무 계약관리 철저를 언급하면서 공작이전 이견사항에 대하여 법률 자문 통해 대응 바라며, 매각예정사에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관련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실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차 계획 수립 또는 사전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을 추진할 것과 옥서면 도시가스 공급 관련 누락된 2개 마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일 의원은 대야면 (구)역사 남측 체계적인 도로망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드림스타트-한국부모교육연구소, 업무협약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한국부모교육연구소(소장 서유지)가 부모 자조 모임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 되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모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는 자조 모임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드림스타트와 한국부모교육연구소는 21일 맺은 협약을 통해 상반기 11회, 하반기 6회, 가족 화목캠프 2회까지 총 19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기에 참여한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긍정적인 훈육 방법을 알려주고,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을 진행해 아이들을 위한 양육법을 익히는 걸 프로그램의 목표로 정했다.

부모와 함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나를 알기, 감정표현 연습, 친구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된다.

이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부모 자조 모임 운영을 통해 서로 경험을 나누며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는 부모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이·통장 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익산시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익산시 이·통장 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이·통장연합회 차재용 신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행정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차재용 회장은 "이·통장연합회가 지역사회와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이·통장님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익산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청년 창업의 꿈 적극 지원한다

정현을 시장, 청년식품창업센터 방문... 식품 창업 위한 맞춤형 공간

청년들이 식품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앞장선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21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식품창업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이명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본부장, 임탁균 익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청년식품창업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후 스튜디오투 △입 대형 공장 △시제품 제작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왕궁면 평안리에 위치한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연면적 9,300㎡에 4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개소해 전문 교육부터 사업화 공간과 시제품 제작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공간이다.

주요 시설로 △멘토링 센터 △창업 정보 자료실 △스튜디오투 및 편집실 △기업 사무실 14개소 △입대형 공장 10개소 △기숙사 44개소 △시제품 제작

실 등이 갖춰져 있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지난 21일까지 임대형 공장 10개소와 기업 사무실 8개소에 입주할 청년 기업을 공개 모집했으며, 2월 말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입주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캠프, 액셀러레이팅 등의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술 사업화를 위한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활동 지원, 투자 로드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해빙기 도로파임 집중 정비 나서

군산시가 겨울철 잦은 강설에 따라 반복된 결빙 및 해빙으로 생긴 도로파임(포트홀)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도로파임(포트홀)은 오랜 세월 반복되는 충격 및 교통량, 도로 결빙 및

해빙의 반복, 겨울철 제설 자재 살포로 인한 지반 약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현재 시는 순찰조를 2개 조로 편성하여 1일, 2회 도로 순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 담당 직원이 참여

하는 도로 민원 접수 오픈 카복방도 함께 운영하면서 촘촘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1,212건의 도로파임(포트홀)을 처리하였으며, 도로파임(포트홀) 맵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상습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도로 재포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가공 적격업체 선정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군산시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가공 적격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센터는 2024년 1개 시군(군산시)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올해 2025년에는 4개 시군(군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으로 확대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과일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오는 3월 말부터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인증 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하에 세척, 박피, 절단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각 지역

에 안전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초등돌봄교실 사업과 연계해 군산시 내 아동보호시설 및 그룹홈 12개소 어린이들에게도 간식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도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지역 아동보호시설 및 그룹홈에 과일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과일간식 공급 지역이 전북특별자치도의 4개 시군으로 확장된 만큼 더 많은 학생이 신선한 지역산 제철 과일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사업이 단순히 과일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건강한 먹거리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